# 김정은동지와 조선의 아이들

## 차 례

# 머 리 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울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아이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친자식처럼 키워주고 세상이 보란듯이 높이 내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아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고 미래이며 희망이다.

그러나 오늘 둘러보면 세계에는 전쟁의 불구름아래서 신음하고 침략의 군화발에 짓밟혀 꺼져가는 불쌍한 아이들,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여 불행의 바다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년, 소녀들, 연필대신 총칼을 쥐고 글소리 랑랑한 교정이 아니라 화염이 솟구치는 싸움마당에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비참한 처지의 나어린 운명들이 허다하다.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문제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지만 조선에서만은 모든 아이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태양과도 같은 열과 빛,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때문이다.

친부모도 주지 못할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고 미래의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다심하게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 있어 조선의 아이들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

아이들을 특별히 귀여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아이들을 위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꽃펴나고 조선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위대한 력사가

변함없이 면면히 흐르고있다.

이 도서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과 그이께서 남기신 일화들을 통하여 조선의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한다.

#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

조선의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육친적사랑과 혈연의 정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후대관, 미래관의 숭고한 발현이다.

력사에는 아이들을 사랑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그 이야기들가운데는 자손들의 쾌락을 위해 위인이 《말》도 되고 《승용마차》도 되였다는 일화도 있고 빈민굴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동정의 돈을 주었다는 일화도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로 보시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불태우시였으며 아이들을 위하여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같으신 령도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고 보배라고 하시면서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대로 이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하며 그들의 건강한 모습과 밝은 웃음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혁명가는 자기 당대에 잘 먹고 잘살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하여 하는것이 혁명이다. 후대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고 인류의 미래이다.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아이들을 밝고 명랑하게, 씩씩하게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한없이 고결한 후대관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그런 고상한 후대관을 지닌 위인만이 민족만대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펼칠수 있다.

혁명가가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은 단지 그들이 천진란만하고 귀여워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조국의 미래이며 나라와 민족, 혁명의 장래운명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기때문이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은 자기 대에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려고 할 때만이 생겨날수 있는 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관, 미래관은 미래를 사랑하고 미래를 키우는것이 혁명가의 마땅한 본분으로, 의무로 된다는 혁명적인 관점이고 립장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전원회의에서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였다. 이것은 온 나라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낳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전설이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조선에서는 그늘진 아이, 아파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한집안의 화목과 번성이 자식들의 얼굴에 비낀다면 나라와 민족의 전도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끼게 된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의 미래와 잇닿아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선을 질식시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빼앗으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그 어떤 바람이 불고 찬서리가 내린다고 하여도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누구도 앗아갈수 없으며 밝은 모습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 아이들이 터치는 행복넘친 웃음소리에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이 있고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시책들은 결코 자금이나 식량이 풍족해서 취해지는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겨울수록 아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조선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이다.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 년, 30 년후에는 그만큼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된다.

자기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떳떳하게 내세우려는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것이 많은 품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힘든 일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속에서 한두명도 아닌 온 나라의 아이들을 위한 결심을 내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것은 오직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는 조선로동당의 자식복이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며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위민헌신을 숭고한 리념으로 간직한 조선로동당만이 펼칠수 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의하여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육아정책을 중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는 나라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2.혁명가유자녀들을 자신의 아들딸로

혁명은 희생을 동반하는 치렬한 투쟁과정이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위업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그 해결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간고한 투쟁사는 혁명에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혁명가들과 함께 그들이 남기고간 유자녀들의 운명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전하고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혁명가들의 유자녀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있어본적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가의 아들딸들이 혁명가유자녀학원에서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사실 한두명도 아닌 혁명가유자녀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며 더우기 국가의 친부모의 심정으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면서 키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로부터 부모들이 자식 한명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하물며 한두명도 아닌 혁명가유자녀모두의 양육문제, 교육문제, 그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준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과 혁명을 이끄는 령도자가 혁명가유자녀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자신이 직접 틀어쥐고 완전무결하게 풀어나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조선밖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혁명학원 원아들모두를 자신의 아들딸, 최고사령관의 전우, 혁명의 핵심골간으로 굳게 믿어주시며 그들에게 친부모도 주지 못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혁명가유자녀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조선의 혁명가유자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들의 친어버이로 모심으로써 태양의 따뜻한 품속에서 세상에 보란듯이 성장하여 혁명의

골간으로 자라나는 행운을 받아안게 되였다.

## 혁명학원 원아들과 찍으신 사랑의 기념사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학원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올리는 일군의 손을 잡아주시며 설명절을 맞는 동무들을 축하한다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 설명절은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자신께서 원아들의 부모가 되여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구내에 들어서니 마치 고향집뜨락에 들어선것 같이 저도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며 원아들에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를 뵙게 된 원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러는 원아들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렬 앞줄에 있던 한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춥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격정속에 발을 동동 구르고있는 다른 한 학생의 손을 잡으시고 울지 말고 사진을 찍자고, 울면 사진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볼도 비벼주시였다.

추운 날씨인데 왜 장갑을 끼지 않았는가, 귀중한 원아들인데 손발이 얼면 되겠는가고 거듭 걱정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의 손을 잡아 따뜻이 녹여주시였다.

사진촬영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끝없는 감격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열병식훈련에 나가있는 학생들도 오늘 사진을 찍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들이 다 기념촬영에 참가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자신께서는 열병식에 동원된 원아들을 위해 래일 훈련장에 나가 사진을 찍어주려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사랑의 화폭이였다.

## 미래의 역군으로 내세워주시며

주체 101(2012)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학원에 어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잘 모셔주어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심깊은 사랑앞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은 한생토록 당의 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모두를 미래의 역군으로 내세워주시였다.

### 혁명학원건물들을 전반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시며

주체 101(2012)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겠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돌아보아야 하겠다고, 체육관이 불비하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꼭 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체육관에 들어서시였다.

체육관의 조명이 밝지 못한것을 대번에 알아보시고 지적해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롱구를 하다가 롱구대에 부딪치면 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롱구대기둥에 해면 같은것을 대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으며 장갑을 벗으시고 몸소 맨손으로 차고 먼지가 낀 바닥을 쓸어보고 눌러도 보시고서는 체육관바닥에 깐 널이 좋지 못하다고, 손으로 만져보니 꺼칠꺼칠하다고, 롱구경기를 할 때에는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데서 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상할수 있다고 친어버이의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벽에 탁구판들을 세워놓은것을 보니 체육기자재창고가 따로 없는것 같다고, 관람석밑에 세면장, 샤와실, 한증탕, 위생실이 있어 체육기자재창고를 꾸릴 공간이 없으므로 창고를 꾸리자면 건물면적을 늘여야 한다고 하시며 체육관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관심하신 그이께서는 체육관뿐아니라 학원건물들을 전반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 행복한 한 가정의 명절식사분위기를 마련해주시여

주체 101(2012)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학원의 체육관까지 다 돌아보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의 식당에 들리시였을 때는 원아들이 저녁식사를 한창 하고있었다.

식탁에 놓인 간장맛도 몸소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꿈같은 행복에 겨워 식사를 하고있는 원아들에게 다가가시여 다정하게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시다가 1 학년의 한 원아에게 무엇을 좋아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는듯 다 좋아한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다시 무엇이 제일 맛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수를 좋아한다는 원아에게 국수를 좋아하면 떡은 싫어하는가, 온반이 맛있는가 거듭거듭 물어주시며 따뜻한 애정을 담아 원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행복한 한가정의 명절식사분위기를 마련해주신것은 먼저 간 혁명전사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기꺼이 되시려는 그이의 심중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친부모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그 나이때에는 아무것이나 다 맛있어할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그 맛이 어떤가에 대해서까지는 세심히 헤아려줄수 없는것이다.

## 혁명학원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며

주체 106(2017)년 3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였다.

그이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식수절을 맞는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꾸는 과정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강조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직원들은 원아들이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 한몸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서라도 푸른 숲을 가꾸어가겠다는 의지를 안고 식수사업에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3.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은 인간의 가장 고결한 품성이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 순결한 사랑, 만사람을 감복시키는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은 없다.

아이들은 가정의 제일가는 보배이고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희망이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래를 가꾸지 않는 사회가 그 어떤 리상을 달성한 례를 력사는 알지 못한다.

오늘날 비인간적인 향락주의가 전염병처럼 만연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사람들의 머리를 침식하여 사회의 제일 큰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많은 아이들이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시들어가고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아이들의 고운 꿈과 아름다운 희망이 찬란한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행복넘친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퍼지는 조선의 자랑찬 현실은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고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와 같은 정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인류가 기억하고있는 동서방의 모든 위인들은 누구나 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온 아이들의 진정한 벗이였고 스승이였고 어버이였다.

하지만 온 나라 아이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천만자식모두를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뜨거운 정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같으신분을 세계는 알지 못한다.

## 1) 아이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아이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위해 귀중한 혁명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는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에 계시는 때를 무척 좋아하시지만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것을 특별히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은 밝고 푸른 저 하늘의 해님과 같다고 말한다.

인자하면서도 너그럽고 따뜻하면서도 포근하며 인정미가 넘치면서도 세심한 어버이의 미소가 한껏 어리여있고 온갖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해님처럼 그리도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은 온 나라 인민들과 아이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버이의 영상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를 대경사로 소집하도록 해주시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조선로동당의 제일중대사로 간주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3.8 국제부녀절 기념음악회가 있은 후 이틀이 지난 그날 일군들에게 국제아동절인 6.1 절과 조선소년단창립절인 6.6 절을 잘 쇠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날에는 청년절과 함께 소년단창립절도 크게 쇠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행사를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경사로 소집하도록 해주시였다.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아이들, 소년단원들에 대한 사랑이 제일 앞자리에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되여 6 월 당에서 마련해준 특별비행기와 배, 특별렬차와 뻐스를 타고 전국각지에서 수도 평양으로 모여온 2 만여명의 소년단대표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게 되였다.

## 공연시간까지 미루어 축포를 쏘도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6 월 6 일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에 몸소 참석하시고 온 나라의 모든 소년단원들에게 축하연설을 해주시였으며 오후에는 대표들과 함께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를 보아주시였다.

처음 음악회는 16 시부터 시작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6.6 절행사와 관련하여 깊이 관심하시며 아이들이 일생을 두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수 있도록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더 해주고싶으신듯 아이들이 창립절을 더 즐겁게 쇠도록 해주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연시간까지 미루어 축포를 쏘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공연에 이어 아이들의 기쁨과 희열이 식을새 없이 밤하늘에 희한한 축포의 꽃바다가 펼쳐지게 되였다.

6.6 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날아오른 천갈래, 만갈래의 불보라,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더욱 눈부실 주체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약속하고있었다.

##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6 월 7 일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2 만여명의 소년단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려 20 번이나 자리를 옮기시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더 뜨겁게, 더 소중히 안겨주기 위해서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나어린 아이들을 위해 한 장소에서 20 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들어볼수 없는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조선소년단 제 7 차대회와 조선소년단 제 8 차대회를 소집해주시고 몸소 대회들에 참석해주시였으며 소년단대표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꼭꼭 찍어주시였다.

## 위인의 축복받은 소년단대표

주체 101(2012)년 6 월 6 일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2 만여명의 소년단대표들, 모범소년단원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날 소년단원들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머리도 쓰다듬으시고 어디에서 왔는가,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평양에 와서 무엇을 보았는가, 앞으로 크면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고 앞날의 포부에 대해서도 다정히 물으시였다.

누구는 과학자가 되려는 꿈에 대하여, 또 누구는 의사가 될 희망에 대하여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담았다.

그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정깊이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옆에 있던 한 남학생의 희망을 물으실 때였다.

병사마냥 차렷자세를 취한 그 학생은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씩씩하게 말씀드렸다.

그의 포부가 못내 기특하신듯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면 무엇을 하겠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학생은 그이의 물으심에 주저없이 제대되지 않고 일생동안 군사복무를 하겠다고 기운차게 대답을 드렸다.

순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비록 나이는 어려도 군인가정에서 태여나 총대를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끝까지 총대와 운명을 같이하려는 그의 결심을 기특하게 여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에게 새 세대의 장한 대답을 들은 기념으로 사진을 한번 더 찍으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그 학생은 모두의 부러움에 찬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또다시 사진을 찍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너무도 커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 학생에게 너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 최고사령관의 전우가 된다고 깊은 뜻이 담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 2만 1번째 대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때에 있은 일이다.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에서 모범을 보인 2만명의 소년단원들이 사랑의 비행기와 특별렬차를 타고 평양에 모여왔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 소년이 자기도 행사에 참가시켜달라고 눈물을 떨구며 떼를 쓰는 바람에 일군들은 당황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알고보니 그 소년은 소년단대표로 뽑히지 못한것이 너무 아쉬워 기차를 타고 혼자서 평양으로 달려왔다는것이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시면서 그를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대회에 2 만 1 번째 대표가 생겨나는 가슴뜨거운 일화가 태여났다.

정녕 그것은 조선의 새 세대들을 모두 한품에 안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이 안아온 가슴뜨거운 일화였다.

## 경상유치원에 찾아오시여 오랜 시간을 바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5 월 어느날 창전거리에 일떠선 경상유치원을 돌아보시였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을 진행한 어린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그리고 꼭 다시 찾아와 어린이들을 모두 만나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고 유치원을 떠나시였다.

그로부터 50 일도 안되던 7 월 14 일 아이들과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경상유치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였다.

이날 여러 놀이칸들에서 즐겁게 뛰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기쁨에 넘쳐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병원놀이칸에서 마주앉아 진찰하는 시늉과 치료하는 시늉을 하고있는 두 아이들앞에 다가가 무릎을 구부리시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있는 어린이에게 자신께서 어디 아파하는것 같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다시 어디가 아픈가고 되물어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이 눈치가 말짱하다고, 저희들끼리 놀 때에는 잘 놀던 어린이들이 낯모를 사람이 와서 진찰을 해달라고 하니 어색해하고있다고 말씀하시며 정깊은 미소를 지으시고 방긋 웃고있는 어린이의 볼을 다독여주시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와 귀여운 어린이사이에 오고간 허물없는 대화였고 친혈육의 정이 넘치는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의 이 천진하고도 꾸밈없는 물음이 너무도 사랑스러우시여 정다운 미소를 지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리도 대견하신듯 크레용으로 유치원통학뻐스를 그리고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보기도 하시고 글쓰기를 하는 5살난 어린이를 이윽토록 바라보기도 하시였다. 춤실에서 춤을 추는 아이들을 보시고서는 어린이들이 귀엽게 생겼다고 하시며 그들의 머리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고 배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시면서는 더없이 만족하신듯 환히 웃으시였다.

운동놀이터에 들리시여서는 제법 전문롱구선수복까지 척 받쳐입고 륜에 공넣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한참이나 서서 지켜보시였고 력기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을 보시고서는 힘장수들 갈다고 엄지손가락도 펼쳐보이시였다. 성수가 나서 자기 재간을 뽐내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을 온갖 시름을 다 잊으신듯 환하신 미소속에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운동복을 입고 뛰여놀던 어린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이날 시간이 많이 지체되였지만 아이들속에 계시는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유치원어린이들의 공연을 끝까지 보아주시고 거듭 치하의 말씀도 해주시였다.

불과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두차례나 경상유치원에 찾아오시여 오랜 시간을 바치시며 어린이들에게 어버이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환하신 영상은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친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 묘향산에서 등산을 하는 소년단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주체 102(2013)년 5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야영소를 새롭게 변모시킬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다나니 시간이 많이도 흘렀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당을 돌아보시다가 문득 지금 야영생들이 모두 어디에 갔는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생들이 등산하러 갔는데 17 시경에야 끝내고 내려오게 되여있다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빨리 가서 야영생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등산길에 올랐던 야영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기들을 기다리고계신다는것을 알고 한달음에 그이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였다.

꿈같은 행복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고있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울지 말고 찍어야 사진이 잘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자고 달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생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원래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의 실태를 료해하여보고 전국의 야영소들을 모두 개건보수하기 위한 안을 세우시려고 이곳을 찾으시였지

야영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사전계획을 하고 나오신것은 아니였다.

묘향산에서 등산을 하는 소년단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어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부모들은 또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하여야 할 일이 많아도 아이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어주어야 마음이 놓이고 발걸음이 떨어질것만 같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처럼 소중한 혁명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신것이다.

## 온 하루를 야영생들과 함께

주체 103(2014)년 5월 2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과 야영소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고 온 하루를 야영생들과 함께 보내시였다.

나어린 축구선수들과 감독들, 심판원들은 물론 그 보장성원들까지도 몸가까이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축하공연관람도 함께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자들과 함께 야영소구내에 나오시자 하늘가에 장쾌한 축포가 터져올라 천갈래만갈래의 불보라로 신비경을 펼쳐놓았다. 야영생들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올리였다.

야영생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렇듯 온 하루를 그들과 함께 보내시였다.

##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펼쳐진 숭고한 사랑의 화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5(2016)년 11월 어느날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여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들리시는 소조실마다에서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펼치시였다.

정보기술소조실에 들리시여서는 소조원들이 만든 다매체편집물을 보아주시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고 미술소조실에 들리시여서는 앞으로 소조원들이 미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산업미술가도 되고 설계가도 될수 있을것이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음악소조원들의 연주를 보아주시고 소조원들이 경음악연주를 정말 잘한다고, 조선의 예술인후비가 다 여기에 있는것 같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다.

소조실마다에서 《아버지원수님! 뵙고싶었습니다.》라고 목메여 부르며 저저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 안겨드는 소조원들속에는 악기를 든채로 그이께 달려와 안기는 학생소년도 있었고 공을 안고 달려온 소년도 있었으며 발을 동동 구르며 그이께 손가락 하나를 내보이면서 사진을 찍고싶은 절절한 소원을 허물없이 아뢰인 나어린 녀학생도 있었다.

꿈만 같은 행복에 겨워 울고 웃는 학생소년들에게 울면 사진이 잘 안된다고, 울지 말라고, 오늘 찍은 사진을 인차 보내주겠다고 따뜻이 달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세상천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사랑의 화폭이 펼쳐졌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진을 찍지 못한 학생소년들과 교직원들이 있겠는데 얼마나 아쉬워하겠는가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이 한자리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로라스케트장이 전하는 사연

주체 101(2012)년 11월 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였다.

로라스케트장을 꾸리도록 명당자리에 그 위치까지 잡아주시고 몸소 로라스케트장형성계획도 여러차례 보아주시면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꾸려놓은 로라스케트장이 멋있다고, 로라스케트장이 정말 명당자리에 꾸려져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라스케트장에 꾸려진 기교장에서 기교동작을 하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이 기교장에서 로라스케트와 판로라스케트를 타고 기교동작을 재치있게 한다고 하시며 로라스케트장과 기교장에 눈비가 오면 물이 인차 빠질수 있게 배수체계를 세워놓은데 대하여 알아보시고 잘하였다고 평가해주시였다.

로라스케트장에는 야간에도 운영할수 있게 바깥주로에 투광등들이 설치되여있었다.

이것을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로라스케트장을 밤에도 운영하면 야간풍경이 더 멋있을것이라고, 대학생들이나 평양시민들은 로라스케트장에 대체로 야간에 많이 찾아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로라스케트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하는것을 잘 연구해보아야 하겠다고, 로라스케트장 준공식을 한 다음 로라스케트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고 떠나시는 순간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이 《만세！》를 부르며 따라섰다.

옮기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격정에 겨워 발을 동동 구르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2)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자라도록

예로부터 설음중에서 제일 큰 설음은 고아들의 설음이라고 하였다. 고아들의 설음, 그것은 부모없는 설음, 따뜻한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정에 대한 그리움의 분출이다. 나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으면 하는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고아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고 소원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조선에서는 친부모도 주지 못하는 혈육의 정이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슴에 따뜻이 흘러넘치고있으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하여 온 나라가 더욱 밝아지고있다.

조선에 부모없는 아이는 있을수 있어도 고아의 설음을 안고있는 아이는 단 한명도 없어야 하며 그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원아들의 밝은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도 지지 않도록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조선의 원아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들로, 앞날의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

주체 103(2014)년 2 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시 평양시의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원아들에게는 부모의 정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원아들에게 부모의 정을 주어 그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항상 밝은 웃음속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아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려 잘 모를수 있지만 앞으로 크게 되면 부모있는 아이들을 제일 부러워할것이라고, 원아들에게 부모의 정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정신적으로 위축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은 한나라의 령도자만이 아닌 한가정의 다심하고도 웅심깊은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애육원에 찾아가시여 간식창고에 그득히 쌓여있는 당과류들을 보시며 흐뭇해하시였고 육아원에 들리시여 젖먹이방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온도를 가늠해보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이불안으로 손을 넣어 쌔근쌔근 단잠을 자고있는 6 개월 남짓한 애기의 발을 손수 만져보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이 저녁밥을 먹는 모습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아주시고 떠나시기 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새로 지은 애육원에서 다시 만나자는 사랑의 약속도 남기시였다.

##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시여 병원에 있는 원아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들은 평안남도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의 실태를 료해하시면서 평안남도 육아원, 애육원에 몸이 허약한 아이들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을 대성산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소문도 없이 애육원 원아들의 입원실에 들어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알아보는 순간 원아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저저마다 어푸러질듯 두팔을 힘껏 벌리며 그이품으로 안겨들었다.

어리광을 부리는 그들을 정깊게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혈색이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이 보동보동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몇살이냐, 밥은 잘 먹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있었느냐고 다정히 물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원아들은 아동영화도 보고 노래도 불렀다고, 맛있는것도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듯 손가락을 꼽아가며 대답하였다.

마치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식을 찾아온듯 한가정의 따뜻한 분위기가 입원실에 흘러넘쳤다.

원아들이 활기에 넘쳐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도 기쁨속에 들어주시고 헤여지기 아쉬워 또다시 동동 매여달리는 그들을 달래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감동적인 화폭은 육아원 원아들의 입원실에서도 펼쳐졌다. 이제 겨우 말을 번지기 시작한 원아들도 아장아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으로 걸어왔다. 너무도 어린 그들이 스스럼없이 흔연스럽게 그이의 품에 안기는 모습은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육원들과 간호원들의 품에 안겨있는 애기들의 볼을 쓸어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댔는데 이제는 한시름이 놓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 아이들의 명절날에 원아들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인가 국제아동절을 맞이한 평양애육원 원아들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 절에 원아들을 찾아주어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애육원 원장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며 자신께서 아이들의 명절날에 애육원 원아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가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의 탁아소들과 유치원들에서는 이해의 아동절이 일요일이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오빠, 언니 등 가족, 친척들은 물론 구경온 사람들로 하여 흥성이고있었지만 찾아올 부모형제조차 없는 애육원과 육아원에서는 조용히 자기들끼리 운동회를 비롯한 계획된 일과들을 집행하고있었다.

바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온 나라 아이들의 명절날에 평양애육원의 원아들을 찾아오신것이다.

이날 애육원의 여러 방들을 돌아보시며 원아들이 부르는 청높은 노래도 들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원아들에게 무엇을 하며 놀았는가, 맛있는것을 먹었는가 다정히 물으시고나서 자신께서 원아들에게 먹이려고 과일요구르트도 가지고왔다고 하시면서 요구르트를 원아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일요구르트에 손수 깔때기를 꽂아 녀자어린이에게 주시자 앞에 앉아있던 남자어린이가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응석을 부리였다. 그런데 여러 원아들도 뒤따라 경애하는 그이께 저저마다 깔때기를 꽂아달라고 하는것이였다.

환한 미소속에 원아들의 모습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정답게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다 꽂아주겠다고 하시며 요구르트들에 하나하나 깔때기를 꽂아주시였다.

아버지앞에서 저마끔 응석을 부리며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는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릴적에는 먹으면 먹은대로 키가 크고 몸이 난다고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명절식사안내표에 계획된대로 해먹이고 래일은 애육원에 료리사들을 보내여 원아들에게 꿩고기완자를 만들어 먹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주체 106(2017)년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평양초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2 학년 1 반에서 진행하는 국어수업도 참관하시면서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그들이 쓰고있는 교과서와 학습장의 질에 대해서도 친어버이심정으로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기숙사를 비롯하여 학원의 곳곳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들에게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그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특전을 지닌 원아들은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 온 나라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원아

주체 104(2015)년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오시여 원아들에게 따사로운 축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아주시였다.

원아들의 공연을 만족하게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공연에 출연한 원아들과 사진을 찍겠다고 하시였다.

이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품으로 맨 앞장에서 달려오는 한 어린이가 있었다. 그 어린이로 말하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번에 찾아오시여 두번씩이나 뽀뽀해주신 어린이였다.

누구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스스럼없이 달려온 그 원아를 안아주시며 그이께서는 이번에도 그의 볼에 뽀뽀를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너는 내가 두번 뽀뽀해주었다고, 이번까지 하면 세번째 뽀뽀라고 하시면서 잘 크라고 친어버이의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 원아들의 하루물고기급식기준량을 300ｇ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애육원을 찾아주신 주체 103(2014)년 2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원아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제였다.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얼마나 먹이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 얼마전에 어느 한 인민군부대 수산사업소에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올해 가을부터 물고기를 하루에 300ｇ씩 먹일수 있게 잡을데 대한 명령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식사칸의 벽에 게시하여놓은 《하루영양공급기준표》를 보시면서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100g 먹이게 되여있는데 자신께서는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 먹이자고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아들이 칼시움을 제대로 섭취하게 하자면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여야 한다고 다심한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300g 이면 중요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물고기급식량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의 하루물고기급식기준량이 그들의 하루물고기급식기준량과 같은것은 좋은것이라고,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의 하루물고기급식기준량을 300g으로, 그 량은 실로 큰것이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 베푸신 사랑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것이였다.





원아들을 위한 특별명령

주체 103(2014)년 정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 인민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 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말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도 채 못되는 2월 3일 감동깊은 화폭이 또다시 펼쳐졌다.

이날 평양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애육원원아들에게 곶감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안변의 감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에서 애육원원아들에게 먹일 감과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교양원들에게 하신 간곡한 당부

주체 103(2014)년 6 월 1 일 평양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아주시면서 이곳 교양원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면 애육원의 교양원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찬 흥분속에 있는 그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식 한명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는데 교양원들이 숱한 원아들을 맡아 수고가 많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며

주체 104(2015)년 1 월 1 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과 양력설을 함께 쇠려고 신년사를 한 다음 제일먼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왔다고, 새해신년사를 하면서 온 나라의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주고보니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이 더욱 보고싶었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는 육아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애육원의 2 층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명절옷을 곱게 차려입은 남녀어린이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새해 설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꼭 껴안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번 애육원에 오시였을 때 만나보았던

원아들이 그사이 무럭무럭 자란것이 못내 대견하시여 그들의 머리를 살틀히 쓰다듬어주시고 두볼도 다독여주시였다.

그날 애육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원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우리들이 정을 그리워한다고 명절날에도 찾아오시고 추운 겨울날에도 오시여 사랑을 안겨주시며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의 친아버지이시라고 목청껏 웨치는 원아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정녕 그것은 꾸며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진심의 분출이였다.

그날 원아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점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후대들을 위해 더욱 굳히신 결심

주체 104(2015)년 6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에 나오시였을 때였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보육과 교육교양, 원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정말 멋있다고, 볼수록 황홀한 이런 멋쟁이아동궁전은 세상에 다시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직관적으로, 웅변적으로 과시하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창조물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얼마나 좋은가고, 그들이 당과 조국을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커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 준공테프를 끊은 원아들

주체 104(2015)년 6월 어느날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식준비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다가 준공식을 할 때 준공테프는 원아들이 끊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이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이사하면서 준공테프를 자기들의 손으로 끊게 하면 어른이 되여서도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해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준공식이 만사람의 축복속에 진행되게 되였다.











## 친어버이의 간곡한 당부

주체 102(2013)년 12월 어느날이였다.

황해북도에 있는 중등학원의 원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또다시 받아안고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을 눈물속에 그리며 자기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원아들이 올린 편지와 함께 그들의 사진을 받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선물을 전달한 정형과 좋아라 떠드는 아이들 사진을 보았다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이제는 춥다, 춥다들 하는 겨울인데 아이들, 늙은이들 건강 잘 봐주고 특히 아이들이 부모없는 설음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한다는 내용의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마음쓰시는 친어버이의 간곡한 당부였다.

##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5(2016)년 7월 2일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처럼 눈부시게 일떠선 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건설을 시원하게 정말 잘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여러 교실들과 함께 실험실, 실습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교실들마다에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각종 교구비품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았을뿐만아니라 원아들이 배운 지식과 원리적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갈수 있도록 실험실들과 실습실들도 잘 꾸려놓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와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식료품과 학용품, 생활필수품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 원아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사업 등에 힘을 넣으며 전국의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사이에 교육교양과 학원운영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식료실습실에 배풍장치가 없는것을 대번에 헤아려보시고 대책을 세우도록 일깨워주시였고 기숙사호실에 들리시여 손수 모포를 펴시고 원아들의 키에 맞는가를 재여보시였으며 식당에서 원아들의 일일공급정형을 알아보시고 위생관리를 더 잘하도록 세심히 강조하시였다.









# 4. 아이들의 행복을 가꾸어가는데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것을 즐거워하는것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정의 구체적표현이라면 아이들의 행복을 가꾸어가는데서 삶의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는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최고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아이들속에 계시는것을 제일로 좋아하실뿐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가꾸어가는데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찾으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너무도 웅심깊고 그 헌신이 그리도 눈물겨워 조선인민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짓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아이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주신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는 억척의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를 천백마디의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중첩첩 막아서는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시면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군 하신다. 자신께서 그려보신 행복동이들의

래일을 현실로 펼쳐주시려 나라의 천만재부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아이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물겨운 헌신의 낮과 밤이 있어 이 땅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호텔이 가는 곳마다 일떠서고있으며 조선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왕국으로 더욱 훌륭하게 전변되고있다.

## 1) 아이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다심한분이시다.

뜨거운 심장으로 아이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은 아이들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추운줄도 힘든줄도 아픈줄도 모르는 다심한 친부모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에게 친부모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이 세상 어머니들의 정을 다 합친다 해도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한 어버이정에는 비길수 없다.

아이들이 리용하는것이라면 아무리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다심한 어머니정을 기울여 세심히 관심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련이어 펼치신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아무리 훌륭하게 꾸려진 창조물에도 자그마한 부족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이 리용하는 모든것은

완전무결해야 한다고 보시며 자그마한 부족점도 스쳐지나지 않으신다.

## 아이들의 궁전에 어린 다심한 사랑

주체 104(2015)년 11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자태가 품위있으면서도 정말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건축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과시하는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극장에 들리시여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극장을 전문예술단체들에서도 부러워할것 같다는데 나라의 왕들이 리용하는 극장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예술체조소조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문을 크게 만든것을 보시고 예술체조소조실벽면이 거의다 창문으로 되여있는데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랭기가 많이 스며들어 온도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소조원들이 겨울철에 이런데서 훈련하면 추워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온도보장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영관에 들리시여 수영관에 구급의료실을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구급의료실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합숙을 돌아보시면서는 호실마다 세면장을 꾸려놓았지만 세면장이 작기때문에 합숙생들이 동시에 리용하기에는 불편할것이라고 하시며 세면장을 매 층에 꾸려주도록 하시였고 오락실에 들리시여서는 콤퓨터를 놓아 콤퓨터오락실로 꾸리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였다.

학생소년들에게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쓰시며 누구도 가려보지 못한 부족점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수령님들께 이렇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보여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관, 혁명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우리 아이들을 그늘 한점 없이 밝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 후대사랑을 전하는 구호

주체 102(2013)년 5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새로 정중히 모시는 문제로부터 침실과 가구, 난방과 전기보장대책뿐아니라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야영소의 운영과 개건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지침을 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구내에 있는 구호들을 보아주시였다.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와 같은 구호들을 써붙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말로 이 구호들은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주는 잊지 못할 글발인것이다.

## 겨울철야영도 할수 있게

주체 102(2013)년 5 월 어느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이어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년중 야영소의

운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때까지는 여름 한철에만 야영을 하고 겨울철에는 건물을 비워놓고있었다.

일군들로부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야영소건물에 난방보장대책을 잘 세우면 겨울철야영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선발하여 이 야영소에서 겨울철야영을 시키면서 그들이 마식령스키장에 가서 스키도 타게 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겨울철야영을 하게 되면 우리 나라에 하나의 새로운 야영체계를 내오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 아이들을 위한 야영기지, 사랑의 보금자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하시며

주체 105(2016)년 12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 월 6 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선경을 펼친 야영소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건축물들을 바다를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파도를 헤가르는 돛배로 형상하였는데 정말 특색있다고, 강원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야영기지, 사랑의 보금자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정히 받들어 강원도 12 월 6 일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 층의 계단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계단부로 가시여 몸소 계단란간을 흔들어보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려관이나 합숙처럼 어른들이 생활하는 곳은 계단란간이 이 정도로 되여도 일없지만 야영소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계단란간이 든든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실, 료리강의실, 식당의 료리실습실, 주방, 식사실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바다경치를 구경하면서 식사도 하고 제손으로 밥과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본 야영의 나날을 일생토록 추억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다용도체육관과 해수욕장에 꾸려진 샤와장에도 들리시여서는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하나하나 헤아려보시고 어느 한 방에서는 아이들의 의자높이까지 가늠해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넓고 시원한 운동장을 돌아보시면서도 야영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겠다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는다는 당부를 남기시고 야영소를 떠나시였다.





##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몇해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위성초급중학교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학교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복도에 놓여있는 옷걸이가 달린 의자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의자의 폭과 길이, 옷걸이의 개수까지 가늠해보시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리용할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교실로 들어서시였다.

교실에는 TV 와 록화기를 비롯하여 원격강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있었고 새 책상과 의자들도 놓여있었다. 새 책상은 웃면을 제끼고 책을 넣게 되여있었다.

책상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책을 넣기 위해 웃면을 제낄 때 책상우에 있던 책이나 원주필이 떨어질것 같은데 책상웃면에 턱이 아니면 홈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지금 복도바닥에 연마화강석을 깔았는데 아이들이 겨울에 눈을 묻혀가지고 다니면 미끄러워 넘어질수 있으니 바닥건재를 다른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 백화점에 생겨난 놀이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몇해전 5 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평양아동백화점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평양아동백화점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상점안에 꾸려진 놀이터에 대하여 들은적도 없고 본적도 없었기때문이였다.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아동백화점의 매 층에 놀이터를 꾸려놓고 부모들이 매대를 돌아보며 상품을 사는 동안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린다고 하여 방을 따로 꾸리지 말고 홀이나 어느 적당한 곳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놓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을 차려놓을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일일이 일깨워주신 그이께서는 백화점을 다녀가신 며칠후 수천점에 달하는 실내놀이터용기재들을 친히 보내주시였다.



## 아동양말에 새겨진 세 친구

주체 103(2014)년 8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의 제품견본실에 꾸려진 아동양말전시대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거기에는 만화그림들이 새겨진 아동양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아동양말견본들을 보니 동물무늬를 새긴 아동양말들이 많다고, 곱게 잘 새겼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동양말

한컬레를 골라드시였다. 외국만화영화에서 나오는 곰이 새겨진 아동양말이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무늬들을 아동양말에 새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에서 나오는 너구리와 야웅이, 곰같은 세 친구를 형상한 무늬를 새기면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한컬레의 양말에도 조선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뜻에 의하여 아동양말에는 어린이들과 친숙해진 만화영화의 세 친구가 새겨지게 되였다.







## 소학교의 수영장에서

주체 103(2014)년 10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새로 건설된 위성소학교를 돌아보실 때였다.

실내수영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수영장을 둘러보시며 수영장온도보장을 어떻게 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실내수영장에 온도를 보장하지 못하면 야외수영장이나 같다고, 온도보장대책을 세워 겨울에도 학생들이 수영을 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윽하여 수조를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무넘이턱이 왜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수조의 벽체들에 퇴수구가 있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조에 무넘이홈이 없는것도 문제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주체 101(2012)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새로 건설한 유치원건물이 특색있다고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경상유치원 앞마당을 모두 피치로 포장하였는데 놀이터에까지 포장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이 저렇게 바닥을 피치로 포장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면 상할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경상유치원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주든지 록지를 조성해주어 어린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 2)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것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분이시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 천만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옥류아동병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소년단야영소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가방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을 비롯한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아이들을 혁명의 골간, 기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는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의 창조자이시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꾸는데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교육교양하는가,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주는가 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이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그들모두를 혁명의 골간, 기둥으로 키우는것이기때문이다.

아이들의 동심세계를 제일 잘 아시고 그것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친부모의 심정은 옥류아동병원의 입원실에 꾸려진 유희오락공간과 벽들에 장식된 동화그림들에도 어리여있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구호들과 평양애육원의 지능놀이방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다.

###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며

주체 103(2014)년 4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전선으로 가시던 길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흠잡을데 없이 꾸려진 야영소를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개건한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것처럼 보인다고, 마치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이 멋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옛날 왕들이 살던 궁전도 이 소년단야영소에는 비기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야영소구내에 빛을 뿌리는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면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말 좋다고, 저 구호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터친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 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 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세상에 둘도 없는 궁전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4(2015)년 11 월 어느날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자태가 품위있으면서도 정말 보기 좋다고 하시였다.

또한 궁전현관홀에 새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명제를 보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 혁명관이 담겨져있는 뜻깊은 친필명제를 밝고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주옥같은 친필의 글발을 한자한자 읽어보느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였는가를 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보여주는 사적물과 자료들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궁전의 일군들과 교원들, 학생소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은 참으로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였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오늘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승리의 합성으로 이어지는것이기에 당에서는 천만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마디마디 뜨거운 정과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 제일 좋은것은 아이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3(2014)년 4 월 어느날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축구경기장에 도착하시였을 때였다.

인공잔디를 깔아놓은 축구경기장은 보기에도 나무랄데없이 훌륭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밤에도 뽈을 찰수 있게 경기장에 투광탑을 설치해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의아해졌다. 전문체육인들이 리용하는 경기장도 아니고 학생들이 야영기간에만 리용하는 운동장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조명이 없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던것이다.

일군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생들이 밤에도 뽈을 찰수 있게 투광탑을 설치해주도록 하며 야외무대 맞은켠에는 전광득점판도 만들어주라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아이들을 위해 세계적인 멋쟁이야영소를 마련해주시고도 그 무엇이 부족한듯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아이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그 사랑은 야외활쏘기장에서도 이어졌다.

그때 일군들은 야영소의 모든 곳이 다 그러하지만 아이들이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있는 활쏘기장은 류달리 품을 많이 들인 곳이기에 그이께 꼭 만족을 드릴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활쏘기장에 기재들을 놓을수 있는 대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활쏘기하는것을 앉아서 볼수 있게 의자도 만들어주라고 하시면서 활쏘기장가까이에는 거울집을 지어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 좋은것을 다 주고싶은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 하나의 구호에 비낀 숭고한 사랑의 세계

주체 103(201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려진 야영소를 만족속에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야영소의 문주우에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써넣는것이 좋겠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당시 문주에는 《지덕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건설자들과 설계가, 일군들이 야영소개건공사를 하면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학생소년들이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겸비하여야 할 풍모를 말해주는 《지덕체》글발을 새겨넣었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대로 문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구호를 새기면 야영소의 특성이 더욱 살아날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여 일군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얼마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친선소년회관 극장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극장의 무대 량옆에 있는 구호를 보시면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 그이께서는 무대이마부분에는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붙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이 구호를 보기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왜 그토록 깊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시는지 일군들은 얼마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이날 야영소의 사무실청사앞에 이르시여 청사우에 붙인 구호《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저 구호가 제일 좋다고,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이라고,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 가방사태, 가방풍년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6(2017)년 1 월 어느날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수도의 면모에 어울리게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학생가방들이 진렬된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정말 가방사태, 가방풍년이라고, 행복의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게 하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며 그처럼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토끼완구가 달린 가방을 보시고서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말씀하시였고 초급중학교녀학생가방과 소학교남학생가방을 들어보시면서는 도안품평회도 하고 중앙심의도 받아 당선된것으로 제품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가방수지제품은 탄력이 좋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가방은 눈맛, 손맛이 좋아야 하며 쟈크식으로도 만들고 끈식으로도 만들며 장식을 풀색, 노란색, 빨간색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하여 가방을 다색화,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 아동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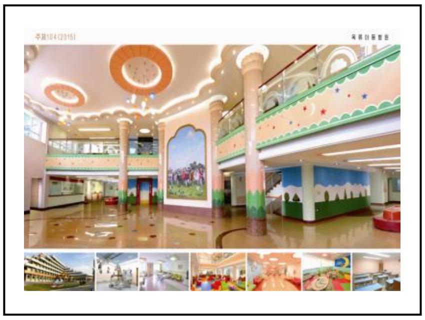
몇해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첨단의료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여러 치료실들을 만족하게 돌아보시면서 집중치료실의 치료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여러 수술실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수 있는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동병원은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요소요소, 구석구석까지 당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된 병원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치과병원과 함께 아동병원도 전문병원으로서의 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이 병원은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아동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 제일 중요한 정책

주체 103(2014)년 12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정책가운데서도 어린이식료품을 생산보장하는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정책이라고, 정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정책이 어린이식료품생산을 최우선 보장해주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많지만 어린이식료품을 생산보장하는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어린이식료품생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에서 콩을 비롯한 원료를 보장해주고 공장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겠으니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생산을 꽝꽝 내밀어야 한다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종업원들은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콩우유를 비롯한 영양가높은 어린이식료품생산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고 공장을 떠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에 콩우유차를 새로 마련해주시면서 도안창작가들에게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을 잘 형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콩우유》라는 글자는 물론 그림도 몸소 선정해주시였으며 글자와 그림을 합쳐 도안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또다시 세심히 보아주시고 완성하도록 해주시였다.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런 뜨거운 사랑을 안고 오늘도 《왕차》들은 쉬임없이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있다.






## 설비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동병원에는 갖추어주어야 한다시며

주체 102(2013)년 7 월 16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옥류아동병원건설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병원에 놓을 의료설비들에 대하여 료해하실 때였다.

사실 아동병원에 설치하게 되여있는 의료설비들은 값이 대단히 비싼것이였다.

그래서 일군들은 어떤 설비들에 대해서는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동병원에 그 설비들을 놓아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설비 한대값이 너무 비싸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동병원에는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아동병원에 놓을 최신식의료설비들을 자신께서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동병원을 어린이들의 궁전으로 손색없이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아동병원을 단순히 어린이들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고, 아동병원은 병원이기 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보건사상을 옹호하고 빛내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장소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맛의 평가기준

주체 104(2015)년 11 월 어느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갖가지 어린이식료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이제는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해야겠다고 하시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분석체계까지 세워놓았으니 제품의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에서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맛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은 어느것을 기준에 놓고 경쟁할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일군의 생각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에 대한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고, 아이들의 입만큼 예민한것은 없다고,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같은 우유가루라도 아이들이 이 공장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을 잘 먹으면 이 공장의것은 맛이 없다는것이라고 하시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시여

주체 105(2016)년 4 월 18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시였다.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줄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우리 당의 보배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민들레학습장공장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종업원들은 민들레학습장공장이 얼마나 중요한 공장인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습장에 우리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게 된다고,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이 계속 울려야 나라가 흥하고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격정에 젖어있는 공장의 일군들에게 민들레학습장공장이 멎는것은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멎는것이나 같다고 말하였다는것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 친어버이사랑은 자그마한 교구비품에도

주체 101(2012)년 5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창전소학교를 돌아보실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 학년교실로부터 외국어학습실과 콤퓨터학습실, 4 층에 있는 강당까지 다 돌아보시며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창문밑에 있는 난방관을 손수 만져보시며 겨울에 춥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도 해주시고 복도를 지나시면서는 복도의 한쪽켠에 옷걸이가 달린 긴의자를 놓아주는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입고온 젖은 비옷과 솜옷을 복도에 걸어놓을수 있다고 하시며 옷걸이가 달린 긴의자는 자신께서 직접 보내주시겠다고 사랑의 약속도 해주시였다.

강당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강당내부를 둘러보시며 강당이 넓다고, 교원, 학생들이 좋아하겠다고 하시며 강당에 있는 의자도 잘 만들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학교를 다녀가신 후에는 그길로 콤퓨터를 비롯한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 맺 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3 차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중대한 책임을 걸머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투쟁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강대함과 후손들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당적책임감과 애국심을 지니고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전환을 위하여 분투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조선의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나라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치시는 헌신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가 있어 조선에서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